

심층 녹색이론의 환경윤리와 기독교적 전통

이 장 형

(천안대학교 교수 / 기독교윤리학)

I. 들어가는 말

II. 심층 녹색이론의 환경윤리

1. 가치와 관련된 문제들
2. 심층 녹색 이론의 환경윤리

III. 나가는말

• 국문초록 •

환경에 관한 논의는 이제 '생태계' 전반에 대한 우려와 생태학(ecology)이란 유기적, 광범위한 학문으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윤리학'적인 사고 자체의 '녹색화(greening)'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경문제에 관한 논의 및 해결책들은 감상적이며 단순한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지나치게 성장 지향적, 인간중심적인 세계관 및 태도를 지양하고, 생태계의 안정적 결속 및 내실 있는 녹색화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금도 새로운 윤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재무장, 헌신의 부활을 통해서 환경관리 윤리를 회복할 수 있다는 보수적 입장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관점을 새로운 윤리이론에 근거하여 재편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된다는 실반과 베네트의 주장은 상당한 도전을 주고 있다.

기독교의 목자론적 전통은 지금까지 다분히 인간 중심적인 논변으로만 해석되어 있는데, 성서의 통전적 이해에 근거할 때 지배론적인 차원의 해석만이 아닌 자연에 대한 보전과 책임이 인간에게 부여되는 현대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윤리설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인간중심적 윤리설, 생태학, 환경, 심층윤리, 녹색화

1. 들어가는 말

환경 및 자연보전에 관한 문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사회적 논의의 주제로서 자리 잡고 있다. 대부분 나라의 정부 및 관련 단체들은 정책 결정 및 생활방식에 있어서 많은 전환 및 개선을 위한 과제들을 제시하고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는 아직도 환경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¹⁾, 지구 온난화 등 지구촌 공동의 과제는 더욱 비관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지구 온난화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올 것 같다는 주장들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 하나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지구는 지난 세기 동안 분명한 온난화 징후를 보였다. 1990년대 10년간은 가장 더웠다. 특히 1998년은 인간이 날씨를 기록하기 시작한 140년이 넘는 기간 중에서 가장 더운 해였다. 2001년이 끝날 무렵,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는 2001년은 기록상 1999년에 이어 두 번째로 더웠던 해라고 발표했다. 사실상 가장 더웠던 해의 열에 아홉 정도가 1990년 이후이다. 현재의 기온 상승률은 1900년대 초반의 세 배에 이르고 있다. 해수면은 지난 세기 동안 10 ~ 20센티미터(4~8인치) 정도 상승했다. 1960년대 이후 세계에 쌓여 있는 눈과 얼음이 10퍼센트 가량 감소했으며, 산의 빙하는 극지방을 제외하고는 도처에서 녹아내려 줄어들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남반구에 영향을 미친 엘니뇨는 점점 더 심화되어, 강수량에 더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²⁾

자연 및 환경 보호(natural and environmental protection)라는 소박한 운동에서 출발한 환경에 관한 논의는 이제 ‘생태계’ 전반에 대한 우려와 생태학(ecology)이란 유기적, 광범위한 학문으로서 자리매김 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윤리학 분야에서는 ‘윤리학’적인 사고 자체의 ‘녹색화’(greening)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경문제에 관한 논의 및 해결책들은 감상적이며 단순한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나치게 성장 지향적, 인간중심적인 세계관 및 태도를 지양하고, 생태계의 안정적 결속 및 내실 있는 녹색화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실반과 베네트(Richard Sylvan, David Bennett)³⁾이 제시한 소위 ‘심층 생태학’의 하나인 ‘윤리학의 녹색화’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는 것은 환경윤리에 관한 논의의 발전 및 실천을 위해, 특히 생태학 차원의 논의보다는 아직도 단순한 표층 및 중간단계의 환경 관련 윤리의 전개가 대부분인 우리 사회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
- 1) 최근 소위 ‘이따이 이따병’으로 불리는 질병이 의심되는 사안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일제 시대부터 사용되던 광산의 폐광지역에서 침출수 등의 처리가 되지 않아서 발생한 원시적인 사고로 추정되고 있다.
 - 2)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IPCC의 『제 3차 평가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피터 싱어 저, 김희정 옮김, 『세계화의 윤리』(서울 : 아카넷, 2003), p. 41.에서 재인용.
 - 3) 그들의 책은 Richard Sylvan & David Bennett, *The Greening of Ethics*, (Tucson : The White Horse Press and The University of Arizona Press, 1994)를 들 수 있다.

II. 심층 녹색이론의 환경윤리

심층 녹색이론, 심층 윤리학, 윤리학의 녹색화 등은 실반과 베네트(Sylvan과 Bennett)에 의해 구체적인 의미가 설정되며 사용되는 개념들인데, 세부적인 개념 이해 및 강조점 등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서로 맥을 같이하고 있는 용어들이다. 우선 이런 개념들의 강조점과 특징 이해를 위해서는 '윤리학의 녹색화'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 실반과 베네트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⁴⁾

첫째로, 환경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즉 그동안 발전 지향의 서구사회는 환경과 협력하고 수렴하는 '지혜로운' 자세가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고 조정하려는 '교만'한 자세를 갖고 있었다. 서구 전통에 있어서 환경은 수동적이고 비정신적인 대상이기에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환경이 파괴되는 곳에는 반드시 인간에 대한 반향이 있다는 점이다. 문명화된 의식이 있는 인간이라면 이제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상호관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다른 생태학적 원칙들은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만족한 생존을 위해 환경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동물의 부양능력, 먹이망, 종내 종간의 경쟁과 협력 등에서 환경과 고립될 수 없다. 인간역시 이런 원칙들로부터 초월해서 있을 수 없으며 다른 생물의 형태와 생태계의 다양함을 고려하지 않고 인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지구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셋째로, 특정한 인간만이 궁극적이며 유일한 도덕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인간중심적 사고 방식은 여러 문제를 갖고 있다. 그동안 인간 이외의 세계는 도덕적 관심이나 고려대상이 되지 못했는데, 오염·인구 과잉·환경 악화·종의 멸절 위기 등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폭넓은 기본적인 책임을 유기했다는 반성과 평가를 낳고 있다. 환경오염이 자연적 생명 보다 심각하게 빠르게 진행된 데에는 다른 어떤 종보다도 인간들의 쾌락·연구·사용 등이 원인임을 부정하기는 힘들다.⁵⁾ 환경오염은 여러 종들의 사멸을 가속화 시키게 된다.

넷째로, 이제 인간 이외의 자연·세계도 윤리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확대되고 있다. 사실 구약성서에도 대홍수 이야기 후에 나오는 신의 심판 장면에서는 사람뿐 아니라 선택된 동물에 대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야웨 신의 약속이 나오고 있다. 세상이 인간 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편협한 생각이다. 도덕적 관심의 대상을 인간에서 세계로 확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환경윤리학에서의 문제는 어느 정도로 새로운 윤리학을 구성해야 하는가의 문제인데, 다시 말하면 전에는 적절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문제가 이제 중요한 윤리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⁶⁾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차원의 윤리를 주장하는 '심층 윤리'와 기존의 윤리학적 체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표층

4) 이하의 논의는 Richard Sylvan & David Bennett, *The Greening of Ethics*, (Tucson : The White Horse Press and The University of Arizona Press, 1994)를 주로 참조하였다. 이 책의 목적은 호주에서의 주요한 환경윤리 운동을 돌아보면서 환경윤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과 행동들을 제시하려고 한다. 유네스코 프로젝트를 통해 1989년에 착수되었던 연구를 통해 개인, 가정, 공동체, 국가와 지구적 차원에서 환경윤리를 가르치기 위한 수단과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5) 폴 테일러에 따르면, 자연 환경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의 행위를 규율해 줄 제 척도와 규칙의 전 체계는 인간의 필요와 이해 관계에만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Paul W. Taylor, *Respect of Nature, A Theory of Environmental Ethics*, Princeton : Princeton Univ. Press, 1990), p.11 참조.

윤리'와 절충을 시도하는 '중도적 입장' 등의 세 부류가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윤리는 에토스(ethos)란 어원에서 볼 수 있듯이 관심, 성격, 사람, 제도 등과 관련된 문제로, 환경윤리란 환경에 대한 개인 및 공동체의 지식과 선도하는 도덕적 원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아직도 지극히 패쇄적인 '표층 윤리'적 입장에서 환경 및 윤리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 상황 속에서 실반과 베네트의 '심층 환경윤리'에 대한 이해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과 태도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제 심층 녹색이론으로 전개된 두 사람의 심층 환경윤리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려고 한다.

1. 가치와 관련된 문제들

윤리를 설명함에 있어서 가치론(value theory)적인 면에서는 탁월함, 좋음, 평범함, 나쁨, 악, 등을 말하고 의무론적 면에서는 옳은, 그른, 공정한, 불공정한, 의무의 허용된 등을 말한다. 책임적 윤리에서는 책임지는, 책임지지 못하는 등의 고려 요소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행위와 행위자의 관련성 및 관계 요소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인간은 도덕적 행위자들로 가득 차 있는 지구상에서 최상의 예의로써 약속을 하고, 의무를 알고 있으며 책임을 수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평가받아 왔다. 이런 인간의 모습이 우주 안에서의 유일하고 완전한 도덕적 행위라는 생각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녹색 환경 윤리'의 전개에 있어서는 '행위자' 중심의 윤리에서 벗어나는 노력이 수반되고 있다.

인간중심주의에서 탈피하는 일은 중간 단계를 필요로 할 수 있는데, 실반과 베네트는 생태 윤리가 출현하기 이전의 '엑토(ecto) 도덕성'을 상정하여 행위자를 배제하고 가치 있는 환경들을 새롭게 평가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윤리에 상대적인 가치의 모든 내용들이 포괄되는 것으로 서식처, 생태체계, 지구 자체 등이 도덕적으로 고려할만한 대상이 되는 것이다.

물론 새로운 윤리를 말하게 되면, 메타윤리(meta ethics)⁷⁾를 떠올리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규범윤리와 대비되는 메타윤리는 결국 윤리적 주요 개념들의 의미와 사용을 분석하는 분석철학의 일종이 되어 버렸다. 윤리를 협소한 의미에서만 논할 필요는 없으며 새롭게 정의한다 하더라도 전통적인 규범윤리 체계들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실반과 베네트는 넓은 의미의 환경윤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새로운 차원의 환경윤리는 우리가 처한 생태학적 환경과 관련하여 적합하게 이해하고 행위 하는 것으로 자연을 다루는 우리의 태도를 이끌어 가는 일련의 원칙들이다"⁸⁾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소위 '회의실' 환경윤리를 반박하여 '채탄막장', 또는 '공장바다' 환경윤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현실적 안목 없이 실현 불가능한 이론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열정적인 환경론자의 입장에서 볼 때 기존의 환경윤리는 행위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열심이 부족하고, 환경 문제들에 대한 실제적인 관심의 향상이나 윤리적 해결책을 갖고 있지 못한 표층적인 환경윤리 및 철학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6) Attfield, R., *The Ethics of Environmental Concern*, Oxford: Blackwell, 1983. 번역서, 로빈 애트필드 저, 구승희 역, 『환경윤리학의 제문제』(서울: 도서출판 따님, 1995), p.168-202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7) 메타윤리(Meta Ethics)는 어떤 도덕원칙이나 행위 목표를 직접 제시하지 않고 철학적 분석에 치중한다. 즉 규범윤리의 문제 보다는 명료화나 해명에 관심을 갖는다.

8) Richard Sylvan & David Bennett, *The Greening of Ethics*, (Tucson : The White Horse Press and The University of Arizona Press, 1994) P.18 참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관심 및 대책의 실천적 가능성을 놓고 환경윤리의 단계를 논하게 되면 단순한 ‘응용 윤리’로서 환경윤리를 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표층 환경윤리를 문제 삼는 것은 그런 윤리가 단순히 환경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다. 녹색 심층윤리 행위의 주체들 중심의 윤리와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차원의 ‘녹색 윤리’로서 윤리학 자체의 ‘녹색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실반과 베네트는 ‘녹색’에 대한 피상적인 접근을 지적한다. 단순히 인간에 의한 자연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나, 인류의 건강에 대한 위험요소의 제거 등에서 볼 수 있는 ‘소비’행태와 관련된 녹색의 이용이 많다는 점을 지적한다. 광고, 정치, 시장 등에 있어 ‘녹색’이 이용되는 경우도 많으므로⁹⁾ 소유지향적 개인주의와 관련된 걸모양의 차원을 넘어서, 소위 ‘생태적 녹색’ 개념이 요청된다. “녹색이 된다는 것은 걸모양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지구나 지구상의 종들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을 줄이거나,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2. 심층 녹색 이론의 환경윤리

인간과 인간 이외의 종사이의 환경 영향에 있어서 평형유지를 위해서는 가까운 미래세계에 대해서 인간이 변화를 주어야 할 부분이 있다. 인구 감소, 여러 사람들에게 덜 영향을 주는 생활태도, 생태계 전체에 주는 인간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기술의 발전 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인간들이 취한 환경에 대한 ‘행동’의 문제를 구별해 보면 세 가지 행태를 보여준다.

첫째로, 표층 윤리학으로서 규범윤리에 단순히 ‘녹색’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최소한 ‘녹색’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타당한 전망이 있어야 진정한 녹색화가 가능할텐데 가능성을 놓고 볼 때 명백한 한계가 있다.

둘째로, 윤리판단에 있어서 환경적 이유를 수용 및 적용하는 규범윤리체계나, 동물해방의 목적을 위한 공리주의적 적용 등에서 볼 수 있는 중간 단계의 윤리학이 있다. 표층윤리 보다는 환경 문제를 환경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이다.

셋째로, 기존의 윤리체계를 넘어서 새로운 비규범적 윤리의 발전을 통한 더 깊은 환경적 근거를 마련하는 심층윤리의 단계가 있을 수 있다. 실반과 베네트는 구체적으로 ‘심층녹색 이론’을 통해 이 단계의 윤리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기존의 윤리 체계가 다음의 요소 중 여러 실패를 발견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 ① 행위자의 계층과 윤리적 평가가 특정한 인간들에게만 제한된다.
- ② 모든 행위 시나리오의 구성요소가 적절하지 못하게 잘려나가고 있다.
- ③ 윤리적 주-술 관계에서 비판적 요소가 제외되고 있다.
- ④ 도덕적 용어와 판단에 있어서 여러 점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이론이 전개되고 있다.
- ⑤ 어떻게 도덕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믿기 어려운’ 혹은 ‘알려질 수 없다’ 식의 이론이 제시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 및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그들은 ‘심층 녹색 이론’을 통해 심층 환경윤리를 전개한 것인데, 넓은 의미의 심층 생태학과 심층 녹색이론을 대비시켜 고려해 본다면 아래표와

9) 우리사회에서도 ‘녹색’이나 ‘환경’ ‘그린’등의 수식어를 붙여 상품을 선전하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것은 소비 자체의 감소가 중요하지, 이런류의 마케팅이 소비증가로 이어진다면 ‘환경문제’ 자체에는 결코 바람직한 영향이 되지 못한다.

같다.

	특징	공통점
심층 생태학 (Deep Ecology)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태학적 평등주의 (biospheric egalitarianism) 2. 생명 중심주의 (biocentrism) 3. 극단적인 전체론 (extreme holism) 4. 생명지역주의 (bioregionalism)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녹색(행위원칙) 2. 심층(자연 항목들 내에 있는 본래 가치: 즉, 보다 좋은 가치 거부) 3. 생태학적 보편성 (포용함, 다양성, 안정성) 4. 모든 주요한 환경 충격 요소의 실질적인 감소 인구, 쓰레기 소비, 기술에 손상 입히기 5. 지배적인 사회적 패러다임 반대 기술 중심의 이데올로기 반대 6. 지역주의와 연방주의 찬성 민주적인 실천, 비폭력적인 실천 7. 생태-다원주의
심층 녹색이론 (Deep-Green Theory)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차별주의 거부 (rejection of class chauvinism) 2. 생태평등주의 (ecoinpartiality) 3. 온화한 전체론 (moderate holism) 4. 생태지역주의 (ecoregionalism) 	

녹색윤리에 대한 반응은 두 부류로 나타나는데, 다른 경우에서도 그렇듯이 새로운 주제 및 방법론을 불필요하며 바람직하지 않다며 거절하는 경우와 이미 확립된 것의 지류 및 확대를 보려는 동화(assimilation)가 있다. 즉 심층 녹색윤리의 의미는 인정하지만 단순히 하나의 응용윤리로 이해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녹색윤리의 차별성 및 특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심층 녹색이론은 기본적으로 “인간들과 인간의 기획들이 가치의 유일한 항목이다”하는 생각과 “인간들과 인간의 기획들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항상 더 가치롭다”는 사고를 거부하는 입장이다. 실반과 베네트는 윤리학 논의에서의 핵심 문제를 가치를 설정하는 일로 보고 있는데, 이제까지의 표층환경윤리학은 환경 자체에 가치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환경이 가치 있게 되는지 어디에 그 가치가 들어있는지를 결정해 주는 데 치중했다고 보고 있다. 이 입장에서 보면 환경은 오직 인간을 위해서만 가치가 있으며, 인간과의 관계에서만 가치를 갖는다. 그런데 ‘심층 녹색이론’에서는 환경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며, 비록 가치가 들어있는 곳이 어디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만 가치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도덕성이란 도덕적인 상태의 속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도덕성이 드러내주는 것이 만일 그 내용이라면 도덕성은 무엇이 도덕인가하는 이론 및 실천적인 원리를 구성한다. 즉 도덕성이란 행위자의 이론과 실천을 묘사하는 행위자의 특정한 면들 모두를 가리킨다. 이렇게 본다면 도덕성은 본질적으로 인간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가능한 것이다. 비슷한 추론이 윤리학 전반에서 나오는데, 인간과 독립해 있는 방법에 의한 도덕성 규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실반과 베네트에 의하면 윤리는 ‘기본적으로’ 사람과 관련이 없다. 도덕성은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인간은 도덕적 행위자들로 가득 찬 지구상에서 최상의 예로서 약속을 하고 의무를 알고 책임을 받아들이는 등의 행위를 한다. 여러 면에서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인간들이 지금 우주에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도덕적인 행위자가 아닐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심층 녹색윤리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간들을 떨쳐 버려야 한다. 물론 인간들은 제시된 목적을 위해서 일정 범위 안에서 유용하다. 인간 중심주의가 회피되었다고 해도 행위를

통해서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이기에 의심 없이 행위자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일방적인 인간 우월주의에 서 있는 것이 문제이다.

실반과 베네트는 ‘표층환경윤리’의 대표자로 패스모어(Passmore)를 다루는데, 그는 서구 기독교적 유산인 지배 및 목자전통에 서 있다는 것이다. 즉 자연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논하면서도 인간의 이익관심(interests)요소와 관련이 없는 문제는 다루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이익관심은 유행을 타는 경향이 있어 오늘날은 심각한 고려대상이 미래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결국 녹색이론은 인간 중심적 종차별주의(human chauvinism)을 거부하는 데서 시작하고 있다. 즉 환경 문제의 범위를 부적절하게 설명하는 현행 윤리학에 대한 불만의 표시에서 출발하고 있다. 결국 이 논의는 기술지배적인 산업방식에 대한 이념적인 반대와 포괄적이며 대안적인 환경 철학적 패러다임을 추구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중심적 종차별주의에서 나오는 편견을 제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녹색 윤리 이론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방법론적인 논변도 갖고 있다. 이 이론은 자연 속에 본래적 가치(intrinsic theory)가 들어 있으며, 자연적인 요소들에는 본래적 가치가 들어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본래적 가치는 인간에서 비론된 가치(human-based)보다 훨씬 우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즉 이 이론은 인간과의 관계에서만 가치가 파생된다는 입장을 넘어서기 때문에 규범윤리학의 종차별주의를 극복하고 있는 것이다. 실반과 베네트는 합리성, 언어능력, 도구제작, 욕구 및 선호, 유정성을 기준으로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했던 기존의 윤리체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다.

“다른 생명체들에 대한 도덕적 존중(moral respect)은 다른 생명체들을 선호하는 존경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특권적인 종을 위해 제멋대로 결정하며 평가하는 것 때문에 생긴다. 모든 인간들(all human)과 여타의 동물 종(all other animal species)간의 예리한 도덕적 구분은 철학자들과 그 밖의 사람들에 의해 윤리학에서 수용되었다.”¹⁰⁾

실반과 베네트는 심층생태학과 심층녹색이론을 가치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단순히 주변적, 환경적인 항목 등의 범위에 들던 요인들이 그 자체로 가치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다른 가치로의 환원이나 인간 중심적인 면에서 이익관심, 선호 등으로 소급되지 않는다. 즉 인간에게 이익이 되든, 쓸모가 있든, 윤리적 권리여부와 상관없이 가치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심층녹색이론의 중심에는 ‘존경’에 대한 논변이 자리 잡고 있다. 즉 이 논변은 세 가지 의무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 ①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것들에게 선호되지 않는 상태를 주지 마라.
-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자연대상물이나 체계의 좋은 상태(Well Being)를 위협하지 마라.
- ③ 문자적으로는 선호되지 않는 상태에 두지만, 실제로 손상을 입거나 파괴될 수 있는 상황에 두지 말라. 그런데 생태계, 생태계 부분들과의 관계, 생태계 전체와 부분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원칙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반과 베네트는 환경은 사치품이 아님을 지적하였다. 지구 공동체에서 정치운동이 사라지고 경제 체제가 바뀌고 이데올로기가 잊혀져도 환경과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간은 생존 자체를 위해서는 만족스런 환경에 의존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10) Richard Sylvan & David Bennett, *The Greening of Ethics*, (Tucson : The White Horse Press and The University of Arizona Press, 1994), p.141.

이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이른 바 그동안의 대부분의 발전된 사회는 환경에 대해 교만한 태도를 가져왔다. 즉 환경과 협력하고 수렴하는 것을 추구하는 대신, 인간들은 환경을 조정하려고 했으며, 그것을 다스리고 자신들을 거기에서 분리해 내려고 했다. 자연 지배적인 서구 전통에 있어서 환경은 수동적이고 비정령적인 대상으로써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되곤 하였다. 새로운 세기에 환경이 주는 반향을 들으면서 인간들은 환경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고도로 문명화된 인간들이라고 해도 다른 종들과 생태적 체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완전히 다스리지 못하며, 환경이 파괴되는 곳에서는 인간에 대한 반향이 반드시 있다. 그러나 만일 인간들이 다른 종과 환경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알게 되면, 즉 마치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자연을 다루게 되면 거기서 인간에 대한 반향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희망적으로 동시에 그들이 자연으로부터 유리될 수 없는 많은 것 가운데 한 종임을 발견하게 된다면 많은 문제들의 해결 가능성과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이 더 이상 환경 및 다른 종들을 인간의 사용을 위해 만들어진 대상으로만 다루지 않는다. 다른 종들과 환경 전체 뿐 아니라 인류의 좋은 상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배우는데 달려 있음을 심층 생태이론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Ⅲ. 나가는말

앞장의 논의를 통해 심층 녹색이론의 개괄적인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지금까지 나온 어떤 환경에 관한 이론보다도 분석적이며 비판-합리적인 절차를 밟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윤리의 정당성 또는 근거를 어떤 신비한 힘이나 카리스마에 의존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인간 중심주의란 좁은 전통이 아닌 계몽주의적 전통 속에서도 생태 평등주의가 제시하고 추구하는 사상 및 태도를 발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금도 새로운 윤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채무장, 헌신의 부활을 통해서 환경관리 윤리를 회복할 수 있다는 보수적 입장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배적이며 전통적인 관점을 새로운 윤리이론에 근거하여 재편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된다는 실반과 베네트의 주장은 우리에게 상당한 도전을 주고 있다.

특히 기독교와 연관시켜 볼 때 기독교의 목자(창지기)론적 전통은 지금까지 다분히 인간 중심적인 논변으로만 해석되어 있는데, 성서의 통전적 이해에 근거할 때 지배론적인 차원에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보전과 책임이 인간에게 부여된 것을 고려할 때 훨씬 더 현대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윤리설로 전개될 수 있다. 구약성서가 자연을 신성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견해는 일반적이다.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된다. 그리고 인간의 이익을 위한 자원인 피조물을 다름에 있어서 신성 모독이란 없다. 실제로 인간의 지배에 관한 구약의 구절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이를 정당화한다. 구약 창세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 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위를 돌아 다니는 모든 짐승을 부려라.” 이 구절을 놓고 볼 때 구약 종교의 ‘하나님의 형상’(the image of God)개념은 신과 인간과의 단순한 밀접한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만물을 지배와 정복의 대상으로 여기는 다분히 전투적인 인간관의 면모를 볼 수 있다. 특히 동물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말하는 히브리어 ‘라다’란 단어는 바빌론

이나 이집트의 왕정계통 언어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다.¹¹⁾ 그러나 기독교 윤리 전통 내에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자리잡고 있는 ‘문화명령’에 대한 해석에서 그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와 관련한 심도 있는 논리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그러나 심층녹색이론은 기독교 환경윤리의 문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각과 도전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KCSI

11) “너는 이집트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막의 통치자도 될 것이다. 모든 땅이 너의 감독 아래에 있고, 너의 신발 아래 있을 것이다.”(이집트의 서사시) 베스터만이 대표적인 경우에 속한다.

참고문헌

- Richard Sylvan & David Bennett, *The Greening of Ethics*, The White Horse Press, Cambridge, UK and The University of Arizona Press, Tucson, USA, 1994.
- 조용훈, 『동서양의 자연관과 기독교 환경윤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H. J 맥클로스키, 황경식, 김상득 역, 『환경윤리와 환경정책』, 서울 : 법영사, 1995.
- Attfield, R., *The Ethics of Environmental Concern*, Oxford: Basil Blackwell, 1983.
- 로빈 애트필드, 구승희 역, 『환경 윤리학의 제문제』서울 : 도서출판 따님, 1995.
- 피터싱어 저, 김희정 옮김, 『세계화의 윤리』, 서울 : 아카넷, 2003.
- 황경식, “환경윤리학이란 무엇인가?-인간중심주의인가 자연중심주의인가”, 『철학과 현실』, 철학문화연구소, 1994, 여름호, pp.172-184.

K C I